

전문가 칼럼

새로운 소비 트렌드, 윤리적 소비



이상훈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Q. 윤리적 제품,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최고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종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거나 브랜드 파워가 크더라도 이것이 비윤리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만들어졌거나, 비윤리적인 거래 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해치는 경영활동 등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동물학대의 사실을 접하면 구매를 꺼리고 더 나아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주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활동을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자원, 환경, 동물, 사람 및 사회에 해로움을 주는 제품은 피하고, 기업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약속 불이행 등 진실성과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활동을 통해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비활동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찾는 것, 우리 동네에 단골가게를 만드는 것 등 작은 변화에서부터 윤리적 소비가 이뤄집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우리 농촌 살리기에 동참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사회, 인권 등 우리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와 소비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윤리적 소비가 시작됩니다.

Q.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자 측면에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윤리적 소비 활성화는 소비 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 활동이 사회적, 생태적 차원의 이익 증진은 물론 소비자 자신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소비는 개인의 욕구와 주관적 가치관, 신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단시간에 소비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윤리적 소비활동이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를 윤리적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소비 제품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상호교류하며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제품이라도 낙후된 품질과 터무니없는 고가의 윤리적 소비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혁신,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생산자들은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을 통해 유용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윤리적 소비를 알리기 위한 워크숍, 슈퍼마켓 투어와 같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자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윤리적 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생산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제철산업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철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내 주요 수출상품 중 하나이며 각종 철강제품들이 제철소에서 생산되어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 등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제철산업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철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슈 및 노력 역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슈 1. 작업장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제품과 설비가 무겁고 위험한 제철산업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청 작업장 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인해 제철업체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추가 설비를 채워넣고 노후된 설비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 또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 국내 A제철회사의 안전경영 강화 노력.

국내 A제철회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 선정한 2014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살인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중대 재해 발생현황 보고자료'를 토대로 원청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를 근거로 이뤄졌다. A회사는 산재사망자 수 10명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선정단은 A회사에 대해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사는 적극적인 안전부문 개혁을 통해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철소장 직속의 안전경영총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기존 88명에서 200명으로 충원하는 등 종합 안전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안전 관련 예산을 기존 1,2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임원 내지 팀장 중심의 야간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안전 관련 교육 강화 및 심리상담실 운영도 병행하여 현장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슈 2. 환경오염 문제

제철산업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로 및 고로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철스크랩에 페인트 같은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철광석 운송과정에서 먼지가 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크스 가공 등 여러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역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철업체들은 환경오염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 지역사회에 투자 및 새로운 설비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이 주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강기업들의 노력을 통해 현장 주변의 지역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사례] B제철회사 토양오염 사건

2013년 국내 B제철회사의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함유 오염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주변 토양 3만 1,419㎡가 오염되고 중요 오염 성분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가 전문업체에 의뢰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마그네슘 공장 내 석탄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저장탱크가 지반침하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페놀 등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공장 주변의 하천과 땅 속으로 다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오염면적은 3만1,419㎡, 오염토량은 13만 3,994㎡, 오염 깊이는 2~15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놀은 기준치를 무려 476배,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86배나 초과한 수치다. 또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페놀 2,307mg/kg(지하수수질 기준치 0.005)으로 지하수 수질 기준 46만 배나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되어있다.

[사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국내 F제강업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원료부터 설비·관리·생산시스템까지 종합적인 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워왔다. 이러한 전략하에 개발한 에코아크 전기로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줄이는 혁신적인 전기로 제강 공법이다. 이는 봉형 강류 철강제품 부문에서 F사가 보여준 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기로를 30%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 이슈 3. 해외공장 신설지역 지역주민과의 마찰

제철회사는 자원 확보 혹은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해외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도 한다. 특히 다국적 제철회사의 경우 자국의 제철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제철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가 큰 제철산업의 특성상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제철소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제철소 건설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주민이 생겨났고, 열악한 이전보상 및 임시 수용소 시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제철소 건설에 차질을 빚고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해외사업 좌초위기에 처한 C제철소

C제철회사는 2005년 인도에 총 투자비 120억달러를 투자해 슬래브와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사는 제철소 건설 초기에 주민 이주, 토지 보상 등 환경과 사회 이슈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회 경제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연구해 가장 합리적인 재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한 NGO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철광석 광산 탐사권 확보 분쟁 등으로 10년 동안 제철소 착공이 지연되어 회사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명성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 이슈 4. 지역경제와 상생

제철회사들은 산업특성상 자체 고용규모가 크고 관련된 하청업체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는 한때 미국 최고의 철강도시로 불리다 미국 철강산업의 하락과 함께 이제는 쇠락한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린 디트로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철강업체들은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생하여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사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철강회사

포항시가 국내 D철강회사의 포항공장과 2천 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정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장은 고부가 제품인 형강 및 특수강을 생산할 예정이며, D회사의 포항공장 대규모 투자는 지역의 주요 철강대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D사는 포항시와 투자협정 MOU에서 포항공장 특수강 제조설비 공사부분에 참여하는 30여개 업체 중 90% 이상을 포항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되는 3만 9천여명의 건설인력을 지역 인력으로 고용할 것을 포항시에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총 투자비의 40%인 총 900억 원의 건설인력 비용이 포항시에 풀리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철강회사는 포항시와 새로운 성장동력과 부가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동반성장과 상생관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E사는 'E사 포항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 지원과 운영펀드를 조기에 제공하고, 포항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사가 보유한 친환경기술과 노하우 및 I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기술지원단을 조직하고, 시는 ECO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팩토리 등 '클린포항' 및 '쾌적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결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철산업은 그 특성상 위에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이 경제·사회·환경에 걸쳐 다양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던 만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78>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729>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708010001615>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4061500135>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666>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01&mode=view&num=170348>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1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2314534164416&outlink=1>
http://www.steeldaily.co.kr/news/n_view.asp?NewsID=3042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5889

동향&소식

최근 윤리경영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공정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결과,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매년 6월말에 심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이행결과 모범사례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장비·부품 국산화를 이룩한 수입대체 성공사례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등 3개사의 수출확대 기여사례 △코웨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 중소기업체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의 주체인 대기업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향후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714010008466>

국내 녹색경영 100대 우수기업 발표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은 재무공시정보 기준 국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종업원 500인 이상 7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5년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KMAR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별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한국언론재단 등 외부 공개 자료를 원천으로 시행하였으며, 분석은 709사 중 전체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한 "Top 107개사" 그룹과 나머지 602개사를 "100대 외 기업"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조사영역은 크게 3개 부문으로, 조직 내부에서 경영테마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인 전략/시스템(환경경영방침 또는 로드맵)의 그 결과로써 경영성과(일반적으로 공개하는 환경성 지표로 에너지 절감률, 폐기물 절감률, 우수 절감률) 및 조직 외부 관련 역량인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환경 관련 부정·긍정기사 건수)으로 구성됐다.

출처: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7/2015071701925.html

금융당국 자본시장 조사 직원에 '사법경찰관' 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직무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장 교란행위 등을 조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년만에야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조사단 공무원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수사가 어려운 특정 업무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처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강제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는 우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007403001608>

해외 인기몰이 녹색채권, 국내에선 시들

해외에서는 녹색투자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는 추세이나 정작 국내는 시들하다. 유럽에서 시작된 그린본드 열풍은 미국에 이어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으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규모는 2011년 이래 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금액이 366억달러로 기존의 발행 누적액(153억 달러)을 초과하는 등 최근 2년간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1년과 비교해 30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13년 수출입은행이 5억달러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행된 녹색채권은 전무하다. 이는 녹색금융을 주도했던 정부의 의지가 약해졌고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어져 국내 금융기관들이 녹색채권에 참여할 실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7021710359206>

해외 윤리경영 동향

美 “돈세탁 방지안 내라” 中 은행에 첫 강제 조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국의 국영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조치에 나섰다. 연준은 중국건설은행과 이 은행 뉴욕지점에 돈세탁 방지를 위해 미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중국의 4대 국영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을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준과 뉴욕 주정부는 이 은행 뉴욕지점에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연준은 돈세탁 행위 위험성이 높은 은행 고객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 내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은행을 대신해 미국인과 달러화로 거래하는 '대행 거래' 내역을 감시하라는 등의 주문을 했다. 연준은 당장 이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측이 적절히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고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지위의 제3자를 고용할 것도 요구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583487>

한-칠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구협업체 추진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CSR 전문가인 연세대 경영학과 박영렬 교수를 초청하여 CSR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산티아고에 있는 칠레대학의 마누엘 아고신 경영대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을 만나 올해 하반기 중 한-칠레 공동 CSR 연구협업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협업체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칠레에 진출한 다국적 투자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칠레 내 CSR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CSR 연구협업체는 한-칠레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현장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05400094.HTML?input=1195m>

위그린, “빅데이터로 ‘착한 상품’ 알려드려요”

독일의 벤처기업 위그린은 e쇼핑몰에서 팔리는 소비재 상품이 얼마나 착한지 평가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착한 제품에는 녹색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품에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어중간한 제품에는 노란불을 보여준다. 신호등처럼 직관적으로 제품의 윤리성 지표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간편하게 착한 제품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위그린 지속가능성 발자국'이라고 부르며 위그린은 지속가능성 발자국 지수를 활용해 e쇼핑몰을 만들고 가격비교 서비스처럼 2천여개 소비재를 보여준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227786>

행사 이모저모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행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호남·제주권(6월 30일, 전주), 충청·강원권(7월 2일, 대전), 영남권(7월 7일, 부산)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해당 권역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였다. 권익위는 행사에서 ▲법을 적용 대상기관,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 금액기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 밖에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5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서울경제신문과 포춘코리아, 성균관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5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가 7월 9일 오후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60개 기업(기업집단 포함)이 상생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던 상생 컨퍼런스는 올해부터 △동반성장 △사회공헌 △환경 △노동·인권을 포괄하는 사회공헌활동(CSR)으로 주제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상생 컨퍼런스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관하는 성균관대 경영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CSR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507/e20150709203914120170.htm>

제1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 중견기업 CSR세미나



중견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견인할 공유 가치 창출의 핵심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 중견기업연구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 '중견기업 CSR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견권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들의 대표적인 CSR 경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CSR 견인을 위한 정책방향 및 중견기업들이 추진할 구체적인 CSR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우수 중견기업 CSR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경영 현장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사회책임공공조달과 중견기업 CSR 연계방안'을 주제로 중견기업 CSR 확대·강화를 위한 공공조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22000720>

◎ 국내외 행사

2015 제17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지방화에서 세계화로: 혁신도시와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유가치창출과 동반성장에 관한 CSV 세미나, 학회별 논문발표 및 각종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지속경영학회를 포함하여 총 28개 경영관련학회가 이번 통합학술대회에 참가한다.

- 주최 : 한국경영학회
-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19(수)
- 장소 : 여수 엑스포 컨벤션 & 엠블 호텔

출처: <http://www.kasba.or.kr/f>

Global Sustainability Summit

지속가능한 경영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투명성, 변화하는 음식 리테일 사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주최 : Food Marketing Institute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21일(금)
- 장소 : Sheraton Denver Downtown, 덴버, 콜로라도

출처: <http://www.triplepundit.com/event/global-sustainability-summit/>

SUSTAINABLE BRANDS 2015 RIO DE JANEIRO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으며, 사업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주최 : Sustainable Brands
-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27일(목)
- 장소 : Windsor Barra Hotel, 리우데자네이루

출처: <http://events.sustainablebrands.com/sb15rio/?lang=en>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 윤리경영 리포트에서는 프랑스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윤리경영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이가 도출되기 보다는 법률의 제정과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프랑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환경문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윤리경영 관련 정부부처>

부처	주요활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지속가능성장의 도구로 CSR에 초점 - 공정무역을 발전전략으로 추진
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문제에 초점 - 기업의 환경문제책임과 Committee 21에 참가 목적 - 지속가능성장에 관심
French Standards Association	- 표준화, 정보화 등에 중점 - 공정무역과 이해관계자 포럼 주도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성장 정책 지원 - 정부부처의 활동과 이행을 모니터링

◎ 프랑스의 비재무적 정보공개 관련 법안

블랑소셜

블랑소셜(Bilan Social)은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의 L.438-1조 규정으로 1977년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기업들에게 고용, 산업안전, 보건, 노동조건 등 총 134개의 지표들에 대한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피고용자 대표와 검토를 거친 후 정부당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랑소셜에 실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가해지지 않는다. 지표의 누락, 정확성 부족, 기한 내 제출의 지연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지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달에서 1년까지의 징역과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신경제규제법

2001년 프랑스 정부는 '신경제규제법(NRE, 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의 제정과 함께 법 116조에 모든 주식시장 상장기업이 연례 사업보고서에 사회 및 환경 이슈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NRE는 '사회적 보고'의 기재항목으로 고용정책, 근로시간과 보수, 단체교섭사항, 장애인근로자의 취업, 건강 및 안전조건, 회사 복리후생 등을 평가 공개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준수 노력, 해외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해외지역 영향평가 등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프랑스 기업그룹의 계열사에도 적용된다.

◎ **그르넬 환경법(Loi de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되었던 환경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에너지·지속가능발전·해양부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Grenelle de l'Environnement"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2008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이 기구가 작성한 기후변화 종합 대응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신환경법안(Grenelle I) 초안을 발표하였고, 동 법안을 상·하원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5일 공포하였다

<그르넬 환경법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부문**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5%까지 감축
 -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관련 연구에는 향후 4년간 10억 유로 (Euro)를 추가 지원
- 건축 부문**
 - 신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기준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현 수준의 38%대로 감축
- 교통 부문**
 -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 수준의 20%대로 감축하여 1990년 수준으로 복귀
 - 이를 위해 대중교통·철도·수상 운송 비중을 높이고 도로·항공 비중은 축소.

프랑스 정부는 신환경법안 I을 분야별로 적용하기 위해 신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도시계획 조화, 교통 인프라의 일관성 확보,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생물 다양성 보존,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 실시, 위험의 통제, 폐기물의 처리, 보건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환경법안 II(Grenelle II)'를 2010년 7월 공포하였다. 신환경법안 II에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프랑스 기업 사례: 슈나이더일렉트릭>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업체 슈나이더일렉트릭社는 본사 빌딩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감축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자사의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본사 빌딩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2009년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본사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사의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도입, 에너지 흐름을 측정하고 HVAC(냉난방공조) 시스템을 개선했다. 2008년에 320kWh/m2까지 달하던 에너지 사용량은 2009년에 그 절반 수준인 150 kWh/m2까지 줄었으며, 올해에 또 절반 수준인 78kWh/m2를 달성하게 됐다. 이는 2020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빌딩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38%까지 줄여야 하는 프랑스의 그르넬 환경법을 8년이나 앞당겨 초과 달성한 것이다.

◎ **프랑스의 반부패정책**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 동안 프랑스 부패방지국(SCPC: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은 프랑스의 부패행위 방지, 조사 및 관련 정보를 정부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2013년부터 UN반부패협약 6항과 36항에 따라 공적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고등기관(HATVP; 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과 재정담당검사제도(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 두 개의 새로운 반부패기관

이 더 설립되었고, 2014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프랑스 반부패관련 법 개정>

프랑스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및 관리하기 위해 2013년 공직 투명성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상황 신고 의무 적용 공직자 범위 확대
- 이해충돌사항 보고 의무
- 새 반부패기관인 HATVP(공직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고등기관) 설립.

새로 설립된 HATVP는 정부관료, 총리, 프랑스 및 유럽의회 의원 등 총 9,000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법 적용대상의 재산 상황 신고와 이해충돌사항 보고를 담당한다. 재정담당검사는 뇌물수수행위, 불법이득, 부정청탁행위, 국가자금유용 등을 담당하여 조사하며 특별조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프랑스 기업의 부패 사례>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토탈社가 이란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1995~2004년 사업 결정권을 가진 이란 정부 책임자들과 연결된 중개인들에게 약 6,0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토탈社는 컨설팅 계약서를 허위로 꾸민 뒤 한 이란 관리와 연결된 브로커에게 1,600만 달러를 주었다. 또 1997~2004년 세계 최대 규모인 이란의 사우스 파르 가스전의 일부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12회에 걸쳐 4,4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13년 미 법무부는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토탈社에 2억 4,5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뉴욕 증시 상장기업인 토탈社가 법을 어겨가며 이란과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1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프랑스의 사회적책임투자(SRI)

2013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규모는 15조 7,130억 유로이며 유럽국가의 SRI 규모는 그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사회적책임투자포럼(Eurosif)에 따르면,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SRI 규모가 가장 크며, 유럽 전체 SRI 규모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럽의 사회적책임투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ovethic에 따르면, 2013년 프랑스의 SRI 규모는 1,697억 유로로 2003년 39억 유로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프랑스의 사회적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SRI 관련법 제정, SRI 라벨 도입, 민간부문의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RI펀드의 SRI 라벨>

프랑스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연구기관인 Novethic은 지난 2009년 SRI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관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SRI 라벨을 도입하였다. 이 라벨은 ESG 기준을 충족시키는 펀드에만 부여되며, 관련 투자 상품에 담겨 있는 ESG 정보 또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책임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RI 라벨 도입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SRI펀드 공시를 활성화하여 관련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AFG-FIR 투명성 코드를 제정한 바 있다. 이 투명성 코드 준수 여부 또한 SRI 라벨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민간영역에서 사회적책임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에는 Novethic, Vigeo와 같은 ESG 평가기관과 AFG, FIR, ORSE 등 관련 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SRI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SRI Week를 정하는 등 민간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SRI관련법>

관련법	주요내용
Fabius Act (2001)	- 근로자연금의 자산운용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NRE (2001)	-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함
Grenelle II Act (2010)	- 펀드 매니저가 투자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프랑스의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CGS	

*참고

프랑스의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CGS, 김선민, 2015

기업의 인권보고지표를 통한 인권경영의 강화, 김병준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 (프랑스 개황, 2011. 4., 외교부)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4

AU PREMIER MINISTRE ET AU GARDE DES SCEAUX, 프랑스 법무부, 2015

<http://www.wsj.com/articles/france-to-prosecute-total-sa-over-iranian-contracts-in-the-1990s-1416940041>

<http://news.donga.com/3/all/20130531/55538097/1>

윤리경영 스테디.

윤리경영 스테디

윤리적 소비의 모든 것!

흔히 착한 소비라고도 부르는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윤리적 소비는 '에너지 절감 제품 구매',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소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근거리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로컬푸드 구매', 즐기지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공정 여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가격이 여전히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의 요소를 구매 결정에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값싼 제품만 선호하는 행위가 소비자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TNS Research International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의 주요 통로중 하나인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2014년 29.5%를 기록한데 비해 2015년 34.7%로 증가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7년 공정무역 인지도가 13.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지난 5년 새 2.5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TV, 신문 등 미디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4.3%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무역 상품을 직접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2.0%는 구매 이유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가치에 동참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해 윤리적 소비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윤리적 소비의 현황

윤리적 소비는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까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대안 활동으로 여겨지며 2000년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정무역의 성장이 대표적이다. 세계공정무역연합회(FLO)에 따르면 커피와 바나나, 코코아 등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9년 약 34억 유로에서 2013년 55억 유로로 1.6배 늘었다. 한국공정무역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 9억 4,000만원이던 공정무역 관련 상품 매출액은 2012년 109억원으로 5년 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2조 7,3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영국의 약 251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여전히 공정무역의 인지도가 낮고 커피, 초콜릿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국제 공정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 현대인의 '의미(meaning)' 추구 경향이 소비 영역에서 윤리적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의 정신적 가치 추구 현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 가격보다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자는 이타적인 행위로 인한 정서적 만족감,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아 이미지, 안전한 농산물 섭취를 통한 건강 등의 가치를 제품과 함께 구매한다.
- 윤리적 소비가 쉽고 다양해졌다. 인터넷 발달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가 쉬워지고 공정여행,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등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1

영국의 윤리적패션포럼 측은 친환경 면화·양모 시장이 내년 1,021억 유로 규모로 성장해 전 세계 섬유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윤리적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와 친환경 급식,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2012년 말 3조 809억원 수준이었던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2020년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윤리적 소비의 4가지 형태

윤리적 소비 관련 미디어인 Ethical consumer는 윤리적 소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할뿐만 아니라 나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과 기업 및 브랜드 불매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Positive buying

윤리적인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위해 일반 백열전구 보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전구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2. Negative Purchasing

비윤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4시간 조명을 켜두고 닭을 학대하며 산란을 촉진하는 양계장의 계란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3. Company-Based Purchasing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의 모든 제품의 구매를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윤리적인 업체 및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례] 국내 A유제품업체 불매운동

2013년 국내 A유제품업체 영업사원의 욕설 녹취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뒤 물량밀어내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대리점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위협, 명절 떡값이나 분사 직원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뜯기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까지 떠안는 등 강압적인 '갑을관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시민단체와 유통업체들은 A유제품 업체의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사의 2013년 5월 판매량이 97만 1,408개에서 56만 8,656개로 34% 감소했다

4. Fully-screened Approach

기업과 제품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때 어느 제품이 더 윤리적인지 계산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소비를 인증하는 라벨 및 평가점수를 참고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윤리적 소비의 주도층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에 대해 특히 관심이 큰 연령대는 40대이다.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실시한 201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49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업윤리를 중요시 여기고 제품 구매 시 일정 부분이 기여되는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인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뉴스 소비 데이터의 연령별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30대와 40대가 윤리적 소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 40대가 윤리적 소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윤리적 소비를 위한 추가 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의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윤리적 소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윤리적 소비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유기농 농산물과 공정무역 제품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문매장에서 구매하는 '특별한' 상품이였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늘면서 이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유기농,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즉 불매운동도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각지에선 수십 년 동안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과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실제로 기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소비자 권익 및 환경보호단체들은 뉴욕 그랜드센트럴 역의 애플 매장을 방문해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5를 만들 때 중국 근로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2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했다. 결국 애플과 중국 내 애플의 최대 부품생산업체인 팍스콘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 결어

윤리적 소비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 윤리적 제품의 시장크기는 전체 시장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다. 기업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더 윤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윤리적 소비자가 몰려온다, 20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0888.html

<http://www.eroun.net/ethicalconsumeris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41212484787587&type=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8/20150508003773.html?OutUrl=naver>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8/20150508003780.html?OutUrl=naver>

감성메세지

“세상을 바꾸는 윤리적 소비, 우리의 생활속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제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매장에서 구매하는 ‘특별한’ 상품이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이젠 마트나 백화점 등 가까운 곳에서도 유기농,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비윤리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윤리적 소비, 가까운 곳에서 나 자신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One Point Lesson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요즘 뉴스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과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세계적인 유제품 업체인 다농사가 합작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해소를 돕는 '그라민-다농 컴퍼니'와 요리를 가르쳐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양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판매기업 '원월드헬스'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입니다

Q.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형태와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두산백과)

이달의 책

이달의 책

Blind Spots, 이기적 윤리

저자: 맥스 베이저만, 앤 텐브른셀
출판: 커뮤니케이션북
출판일: 2014. 10. 30
정가: 18,000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는 대개 윤리수치가 높다. 구성원들의 행위 잣대가 윤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높은 예측 가능성은 안정을 담보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행위에 있어서 비윤리적인 구성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기적 윤리, 즉 블라인드 스폿(blind spots)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인간의 윤리성에 내재한 사각지대, 즉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윤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이기적인 윤리성을 언급한다. 특히 인간의 이기적인 윤리성이 어떻게 조직과 사회의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위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려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방식과 의도하지 않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포드자동차 결함 등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살펴본다

[대구신문 제공]

Ikea(이케아) - 스웨덴이 사랑한 이케아 그 얼굴 속 비밀을 풀다

저자: 사라 크리스토퍼슨
출판: 안그라픽스
출판일: 2015. 7. 10
정가: 16,000

전세계에 수많은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이케아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좋은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공공선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기업'. 이 같은 이케아 신화는 이케아 제국을 건설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비평가이자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학자 사라 크리스토퍼슨은 이케아가 단순히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디자인만으로 세계 가구시장을 점령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Ikea(이케아)』를 통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문화의 선두주자로서의 이케아뿐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하고 세계의 소비문화를 이끄는 전략가로서의 이케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